

정유4사, 내수-수출가격 차이 “인정”

수출용은 운임료·보험료 제외 ... 내수용에 재고유지·판촉비 포함 주장

국내 정유4사가 내수용 석유제품을 수출용보다 비싸게 판매해 폭리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당 정유기업들이 “내수용과 수출용은 서로 가격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유기업들은 “수출용은 통상 운임료와 보험료가 빠진 FOB(본선인도가격)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반면 내수용은 국내 운송비와 재고유지, 판촉, 마케팅, 관리비용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들어 계속되는 고유가 사태와 중국의 수요폭증으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기는 했지만 원래 아시아 석유시장 자체가 공급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용 가격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SK는 “석유제품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전자 등 다른 업종도 수출용의 가격은 내수용의 50-80% 수준에 불과하다”며 “서로 반영되는 비용과 가격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순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밝혔다.

LG-Caltex정유와 S-Oil도 “내수용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는다면 해외에서 석유제품을 들여와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마진으로 먹고 사는 석유수입기업들이 왜 전부 망하다시피 했겠느냐”며 “내수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화학저널 2004/08/18>